



안경 은 이야기 (6)

실명의 원흉, 백 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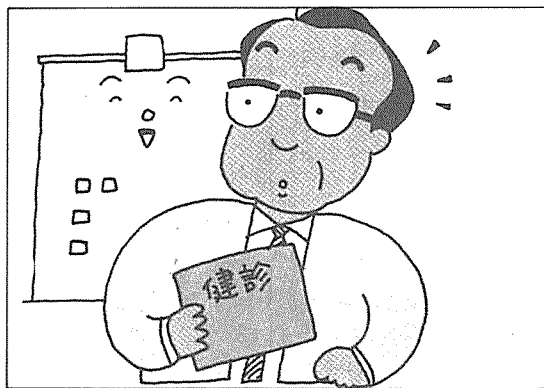
이 상 욱

백내장(白內障)은 우리나라 실명 원인 중에 으뜸을 차지하는 눈병으로, 통계에 의하면 시력을 잃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의 약 3분의 1이 백내장이다. 더욱이 이 병은 노인성 즉 노화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평균수명이 늘어날 수록 백내장 환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선 백내장이란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의 구조를 간단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눈의 단면도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선은 눈의 검은 자에 해당하는 각막과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에서 주로 꺾여서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초점을 맺게 함으로써 외부의 물체를 똑똑히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각막이나 수정체 같이 빛이 통과하는 부분은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눈속의 수정체가 혼탁되어 생기는 것으로서, 이런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유전이나 타고 날 때부터 생기는 선천성 백내장, 백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 전신에 여러가지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전신성 백내장이 있다.

어떻든 갑자기 안경이 잘 안맞게 되면 당뇨병이나 노인성 백내장의 초기가 아닌 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수정체가 혼탁해져도 전체에 번지지는 않았으므로, 시력은 0.5내지 1.0정도이다. 그러나 미숙기가 되면 혼탁은 더 진행되어서 시력은



갑자기 안경이 잘 안맞으면 당뇨병이나 노인성 백내장의 초기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

0.1에서 0.4정도로 떨어진다. 이것이 더 진행되어 완전히 수정체 전체가 혼탁되면 까맣게 보였던 동공은 백색으로 된다.

백내장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백내장의 치료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물론 약으로만 치유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으므로 옛부터 여러가지 약제가 사용되어 왔고 또 현재도 사용하기는 하나, 백내장이란 경과가 길고 진행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진행이 정지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약이 백내장의 진행에 억제 효과가 있느냐 하는 판정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초기에는 일단 약물요법을 시도해 보며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약물요법이 다소 효과가 있는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약물요법이 사용되지만 이 약만 사용하면 수술은 안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백내장은 결국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즉, 백내장이란 적절한 시기에 수술해야 되는데 대개 “교정시력 0.3이하”가 되든지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때 수술로서 혼탁된 수정체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표준이지 환자의 눈상태, 연령, 직업 등에 따라서 수술시기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백내장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크게 나누어 낭내적출법과 낭외적출법이 있다. 수정체를 싸고 있는 주머니를 포함하여 수정체 전부를 제거하는 것이 낭내적출법이고, 초자체에 가까운 뒷부분의 주머니는 남기고 수정체의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낭외적출법이다.

낭내적출법은 수정체의 뒷주머니까지 제거함으로써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망막박리가 잘 온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잘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낭외적출법은 두께 0.01mm인 수정체의 뒷주머니를 남긴다는 뜻인데 초자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남은 주머니가 다시 혼탁해지는 수도 있다는 결점이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낭외적출법을 많이 한다.

한편, 낭외적출법의 일종으로 수정체를 제거하는 초음파 액화흡인법이 출현했다. 이것은 절개구를 가능한 한 적게 할 목적으로 고안됐으며 보통은 눈을 10~15mm 자를 것을 3mm정도만 잘라도 가능하며, 지름 2mm정도의 금속침을 초음파 에너지로 매초 약 4만회의 스피드로 상하로 진동시켜 수정체의 핵을 부드럽게 부수고 액체처럼 액화시키면서 침의 구멍으로 눈밖으로 빨아낸다. 다른 수술방법에 비해 수술의 상처가 아주 작으므로 조기 퇴원도 가

능할 정도이고, 환자의 부담도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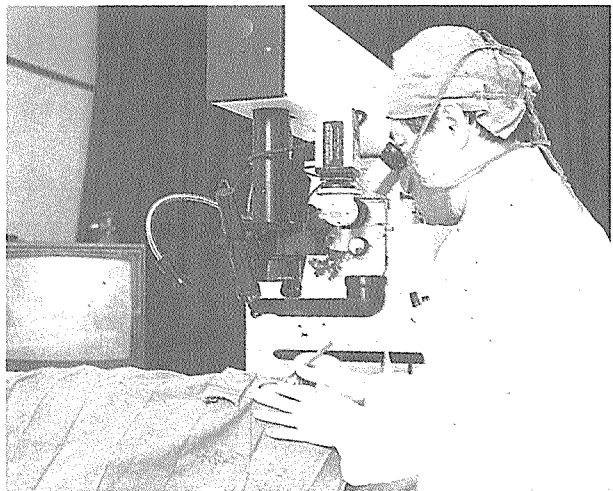
백내장 수술후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은?

백내장 수술이란 일단 혼탁해진 수정체는 다시 맑게 할 수 없으니까 눈밖으로 제거해 버리는 수술이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렌즈를 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렌즈가 없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없듯이 수정체를 빼낸 눈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똑똑히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에 해당되는 렌즈를 끼워주어 굴절의 교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1) 안경으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

두눈 다 수술한 경우는 안경을 낄 수 있는데 수정체 대신으로 강한 도수의 두꺼운 볼록렌즈를 끼워야 한다. 그러나 한눈만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는, 수정체에 해당되는 렌즈를 끼워 주어 굴절의 교정이 필요하다.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한눈에만 두꺼운 안경을 씌우면 양쪽 눈의 차가 심해서 어지러워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또 두꺼운 안경은 모양도 흉할 뿐 아니라 안경 주변부는 물체가 휘어 보인다는지 보이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

2) 콘택트렌즈를 쓰는 방법이 있다.

한쪽 눈만 수술한 경우나 두눈 다 수술했을 때 어느 쪽이든 쓸 수 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는 끼거나 뺄 때 각막에 상처를 내기 쉽고, 껴다 뺐다 하기가 번거롭다는 등의 단점도 있다. 또 오래 쓰면 눈의 충혈이라든가 불쾌감, 통증 때문에 못쓰는 경우도 더러 있다.

3)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인공수정체를 끼워 넣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백내장 수술 때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 그 자리에 수정체 도수에 맞게 만들어진 “메칠메타크리레이트” 또는 “실리콘” “하이드로제”등의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수정체를 삽입

백내장 수술 후 수정체를 고정하는 방법으로는 강안 도수의 볼록렌즈를 끼우는 방법, 콘택트렌즈를 쓰는 방법, 인공수정체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이 있다.

시켜 주는 방법으로, 수술하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없이도 똑똑히 볼 수 있고 또 현재까지 적어도 30년 동안 결과를 관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근자에는 말랑말랑한 재질로 된 연성 인공수정체나 원근 모두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수술자의 눈의 상태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선해서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 안과과장]

국민
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